

## 지역 소식통

고창군, 경운기·트랙터 등화장치 무상 설치

고창군이 올해 총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운기와 트랙터 22대를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트레일러에 동선을 싣고 주행하거나 야간·우천시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어렵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등화장치 제작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곳을 선정하고, 영농철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등화장치는 국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저속차량 표시등은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LED램프로 전구교환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전 군민 재난 지원금 10만원 지원

고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관내 사업체와 상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군민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부양세대와 3자녀 이상 세대에게도 각각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부모님 섭기는 효자군정’, 자식 놓아 잘 짓는 고창’의 군정 방침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법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고창군 소재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행, 유통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고려청자휴게소 '개장'

서해안고속도로… 고려청자전시관·청자 관련 아트트릭 등 다양한 볼거리 기대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휴게소(서울·목포 방향)가 1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나들목과 즐풀나들목 사이 104km지점에 위치한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진기 부안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총 266억원을 투입해 주



차장과 화장실, 화물차리운지, 주유소 등으로 조성했다.

화물차 통행비중이 높은 노선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화물차리운지를 조성한 점이 이색적이다.

영방향 각각 조성된 화물차리운지는

풀침대와 개인 사워공간을 구비한 수면실(6개), 세탁실 등을 갖춰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청자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부안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휴게소 인테리어에 고려청자를 이미지화해 적용했다.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청자전시관과 청자관련 트리아트(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미술작품) 포토존도 설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 고창군에 발효식초의 상큼한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 ‘상큼한 식초의 매력 배워요’

고창군, 식초문화 아카데미 개강

전북 고창군에 발효식초의 상큼한 매력을 흠뻑 빠진 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초활용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식초활용반’을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식초를 이용한 한식, 디저트 간식, 카페 음식 등을 알려 식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강식은 100여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며 교육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초문화도시 고창에선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의 물 식초’를 마시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아카데미를 통해 전 군민이 생활 속에서 식초를 만들고 하나님의 식문화로 자리매김해 식초산업 활성화, 고창 농식품산업에 혜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112억원 투입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사업 본격 시행

정읍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시민건강 위한 저감 사업 속도

정읍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승용 10대, 화물 140대)사업,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738대) 지원사업, 배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사용분 거지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정읍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폐차(수출발송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

해야 하고,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교육 참여자 20개 팀 모집

정읍시가 SK네슬리스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점을 원도심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조인 정읍(Joy'n 정읍) 로컬 청년창업 교육 참여자 모집기한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조인 정읍은 정읍시와 SK네슬리스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지역 재발전 활성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에는 천변로 생고을시장

인근에 예비 청년 창업가와 로컬 창작자를 위한 공간 ‘공유가게 1·2호점’을 조성하기도 했다.

조인 정읍 청년창업 교육은 정읍 지역 청년창업기의 가게 운영 경험과 노하우 향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서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4월 오픈 예정인 조인점을 공유 오피스를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교류 후에는 우수 예비 창업가에게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연계 지원금 지원 ▲청년지원센터 주관 청업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김대환기자

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영농 정착 지원, 전입 지원금 지원 등이다.

통합안내서에는 이들 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요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통합안내서를 실·과·소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읍시 홈페이지 인구정책 정읍에서 행복 시작 메뉴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해 시민들이 분야별 맞춤형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